교계 노인복지 '진일보'

경제난에 따른 절대빈곤층의 증가로 무료급식소를 찾는 노인들은 더욱 늘어나고 있으나 후원금의 절대부족과 정부 보조금 동결 등으로 운영이 갈 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하지만 교계 사찰과 복지단체는 IMF 관리체제에 들어서면서 더욱 활발한 노인복지 사업을 벌이고 있다.

무료급식·병원·보호센터 부쩍 늘어 목욕·이미용·간병 서비스도 활발

그간 교계 복지관을 중심으로 꾸준히 늘어난 노인 무료급식소는 지난해 말 이후 수요인원의 2~3배 증가에도 불구하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연꽃마을 인천 동구 경로식당과 공주 금강사회복지관이 2월에, 서울 청담종합사회복지관이 3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4월, 부천 석왕사가 6월에 무료급식소를 개설하는 등 사찰과 불자들의 후원 아래 양적 질적으로 무료급식사업이 확대되고 있다. 가장 오래된 '자비의 집'을 비롯 노인대상의 무료급식소는 60여개에 달한다.

노인무료병원, 양로원, 노인주간보호센터 등 노인복지시설도 잇달아 개설됐다. 연꽃마을은 지난해 말 수원과 안양에, 올 3월 인천에 노인무료병원을 각각 개소한데 이어 6월에는 노인 수련원인 대구 보살선원을 개설했다. 또 같은 달 서울 도안사가 무의탁 노인시설인 자혜방생원을, 삼소원이 무료양로원을 나란히 개원했다.

특히 올초 인덕원의 노인주간보호센터 및 단기보호소의 개소이래 노인주간보호센터가 연이어 개설된 것도 주목할 만한 일이다.

최근 두달 동안 문을 연 교계 노인주간보호센터는 지난 6월 개소한 옥수종합사회복지관과 8월에 개소한 청담종합사회복지관에 이어 9월 8일 개소한 자양사회복지관 등 세 곳. 지난해 개소한 연꽃마을에 이어 다섯 곳의 노인주간보호센터가 지역 노인복지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이같은 노인주간보호센터의 잇단 개설은 일반 노인복지시설에서도 아직 드문 일이어서 불교노인복지의 활성화를 예고하고 있다.

◇조계종 강북장애인복지관이 지난 7월10일 마련한 '초복맞이 노인 공양의 날'.

이같은 노인복지시설과 지역 사찰에서 주관하는 경로잔치, 노인나들이 행사, 무료 영정촬영, 이동목욕차량 운영·이발봉사, 간병봉사, 무료 반찬배달 서비스 등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도 활성화되고 있다.

보문복지회가 지난 8월26일 노인복지세미나를 개최하고, 대구 불교사회복지회가 '노부모 모시는 자녀들의 모임' 결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교계의 노인복지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다.

교계 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어려운 때 일수록 사회에 구원의 빛을 발하는 자비문중 특유의 보살심이 가장 소외된 이웃인 노인들에게 다가서는 것 같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禪이 현대인에 주는 의미

M-TV 10일 '나를 찾아…'서 조사선 집중 조명

선(禪)은 불교의 수행과 깨달음을 상징하며 불교의 수행법 가운데서도 가장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자기탐구의 방법이다.

MBC-TV는 선의 성격과 선이 현대인들에게 주는 의미 등 선 세계를 집중 조명한 다큐멘터리 '나를 찾아 가는 선'을 10일 밤 11시부터 12시까지 60분간 방영한다.

이 프로에서는 LA 서부에 있는 선방에서 참선에 몰두하고 있는 외국인들과 수유리 화계사 국제선원에서 정진하고 있는 외국인 스님들의 수행 모습이 소개된다. 또 8월18일부터 한국 조사선의 전통을 재확립하기 위해 고불총림 백양사에서 열렸던 '무차선회' 장면도 보여준다.

특히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서옹·혜암·진제 대선사의 법문 후에 이뤄진 법거량은 직접 '무차선회'에 참석하지 않고도 조사선의 진면목을 느낄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의 하일라이트.

MBC-TV 교양제작국 임채유PD는 "이 프로를 통해 현대인들이 어떠한 사상적 권위나 지식에[집착하지 않고 선의 의미를 깨달아 주체적인 자기형성의 자유를 체득하길 바란다"며 "이것이 바로 이 프로그램이 전달하고자 하는 선의 궁극적 진리다"고 말했다.

"노인학교 다니면 생활 즐거워요"

성운스님 석사논문 '노인만족도 연구'서 밝혀

사찰 노인포교 관심을

"많은 노인들이 노인학교에서 교육받으며 건전한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을 때 소외 등 노인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성운스님(인덕원 이사장·사진)은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 논문 '노인의 생활만족도 연구-노인학교 학생과 기타노인과의 비교'에서 이같이 제언했다. 이 논문은 서울시 거주 노인 771명에게 여가·부양만족도 등의 설문 조사를 토대로 작성됐다.

논문에 따르면 현재 생활에 만족하는 노인들 중에서 76%가 노인학교 학생노인이며 나머지 응답자는 노인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 '여가활용을 위해서'(42.9%) 노인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들에게 학교를 다니면서 생활 변화를 묻는 질문에 '생활이 즐거워졌다'는 응답이 48.6%로 가장 많았으며, '친구가 많아졌다(25.4%)' '건강해졌다(20.3%)' 등으로 조사됐다.

성운스님은 "유엔이 99년도를 '노인의 해'로 정해 놓고 있어 내년도 노인복지에 대한 정부의 투자 확대를 예상할 수 있다"며 "교계에서 노인들의 교육·복지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찰에서 이것을 적극 수용한다면, 사찰이 노인들의 포교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北 답사기 5부작 방영 Q채널 16일부터

케이블TV Q채널(ch·25)은 최근 북한문화 유적 답사를 마치고 돌아온 고은, 유홍준, 최창조, 김주영 등 4인의 명사들 눈에 비춰진 북한문화 유적과 자연 풍광들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그리운 북녘땅, 우리문화 답사기'를 16일부터 10월14일까지(매주 수요일 오후10~11시) 5회에 걸쳐 방영한다.

16일 방송될 제1부 '평양과 개성의 문화 유적지'에서는 1898년 동명왕릉에서 발견된 고분벽화와 수백 개의 병사상·궁녀상·선죽교·표충비 등 평양과 개성에 산재해 있는 유물들을, 23일 방영될 제2부 '북한의 명산과 산사'에서는 묘향산·금강산·백두산 등의 명산과 그 산자락에 자리잡은 보현사·표훈사 등의 명찰들을 유홍준교수(영남대 박물관장)가 소개한다.

30일 방영되는 제3부 '북녘산하 북녘풍수'에서는 황해도 사리원의 정방산성·성불사 등을 소개하고 제4부(10월7일 방영) '북에서 만난 사람들'에서는 부끄러움 많은 접대원과 판매원 아가씨의 풋풋한 정을 김주영씨가 전달해 준다. 10월14일 방송되는 마지막회 '금강산아, 백두산아'에서는 만물상, 표훈사 등의 금강산과 천지·삼지연 호수, 장군봉을 품고 있는 백두산의 아름다운 장면이 펼쳐진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단 신

문화유적 답사·봉사활동

청교련 대전지부(지부장 종실)는 13·20일 청소년 4백여명이 참여하는 '문화재 봉사활동'을 실시한다. 청소년들에게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애착심을 함양시키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는 회덕향교, 남간정사 등의 문화 유적을 답사하고 유적지 청소도 병행한다. (042)488-0732

어린이 전래놀이 한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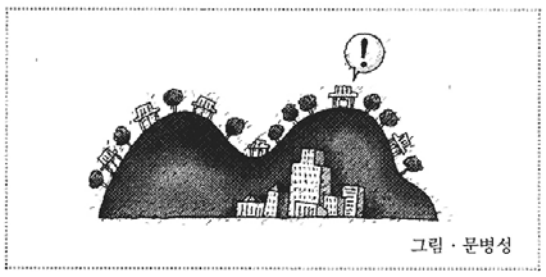
선재연구모임(회장 덕진)은 10월19일 오전 10시 용산가족공원에서 '어린이 전래놀이 한마당'을 개최한다.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건전한 어린이 놀이문화의 확대보급을 위한 이번 행사에서는 인간줄다리기, 꼬리따기, 판씨름, 투호, 윷놀이, 콩주머니 등 모듬놀이 30여종과 개별놀이 15여종이 진행된다. (02)433-1506

주부 신행담

바른법을 찾아서②

점 보고 복 빌며 불법인줄 착각


그림·문병성

지금 나는 한편으로는 여러 형태의 신행자들의 면면을 직간접으로 경험한 좋은 기회였다고 자위를 해본다. 왜냐하면 내가 처음부터 선지식을 만나 정법을 배웠다면 불법과는 다른 왜곡된 신행형태를 경험해보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 보살과 찾은 사찰은 뜰이 넓은 한옥을 개조하여 삼불 부처님을 모셔놓고 창건주 보살이 비구니 스님 한분과 지장기도만을 주로 하는 사찰이었다. 때마침 우란분절을 앞두고 조상 천도 기도를 하느라 바빴다. 우리 두사람도 기도에 동참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날부터 열심히 조상님 왕생극락을 위하여 기도정진하였다. 몇 개월을 동참기도를 하면서 차츰 이곳 신도들과도 가까이 지내며 가정사 이야기도 서로 나누며 친해져 가고 있었다.

그런데 이곳 신도들은 거의가 기복 신앙자로 많은 기도비를 내고 불공드리는 신도들 뿐이었다. 대화내용을 들어보면 〈금강경〉을 집에 모시면 집안이 편치 않다느니, 특히 기가 약한 사람이 독송하면 안된다는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초발심자인 나로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들만 하고 있었다. 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스님께 법문을 청하기도 하고 의문나는 점을 말씀드리면 스님께선 대답을 회피하고 그저 열심히 염불하고 기도에 동참하면 무슨 일이든 다 잘된다는 것으로 일관하셨다.

불법을 알기 위해서 이곳을 찾았던 나는 여기서는 불가능함을 알고 같이 다니던 보살이 잘 아는 스님이 계신 어느 절을 찾았다. 그러나 이곳도 역시 다를바 없는 맹목적인 기복신앙자들만이 모인 곳이었다. 더군다나 이곳에서는 창건주보살이 불당을 차려놓고 비불교적으로 신도관리를 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당신 집에 재앙이 오고 있으니 산기도를 해라. 또는 몇대 조상이 탈이 났으니 착실히 기도를 해야된다는 등등이다. 어리석은 중생들은 어렵게 마련한 기도비를 내고 산으로 강으로 헤매고 있었다. 그러니 이 어리석은 중생들은 어디에 가야만 선지식을 만나고 또한 정법을 만날 수 있을까? 문제는 많은 불자들이 자기 자신은 옳은 신행을 하며 그것이 불법인 줄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찌 안타깝고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있나.

나는 이곳에서도 회의를 느끼고 바른 법을 배울 수 있는 곳을 찾아 나섰다. 그러던 중 어느 포교원 앞에서 불교대학 수강신청이란 간판이 눈에 띄웠다. 나는 기대를 가지고 입학을 하고 여러 법우들과 함께 열심히 공부를 했다. 진작 이곳을 못 찾은게 그렇게 후회스러울 수가 없었다. 이제야 바라던 선지식을 만났고 정법을 배우게 된 계기가 된 것이다. 나는 이곳에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무치에서 헤매던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환희심과 신심을 더욱 굳건히 하는 기회가 되었다.

백천만억겁을 지나도 만나기 어려운 부처님법, 정법을 만나기는 더욱 어렵다는 스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 뭉클함을 느끼며, '부처님 감사합니다'하고 감사의 눈물도 흘렸다.

유밀다행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IMF 어려움 겪는 이웃에 따뜻한 法音 전합시다

현대불교 '1구좌 1천원 법보시' 운동 전개

우연히 접하게 된 단 한마디의 가르침일지라도 그것이 마음밭에 뿌려지면 반드시 싹이 터서 크나큰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부처님께서는 "사구게를 받아 지니거나 남을 위해 알려주면 그 복덕은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차도록 칠보를 보시한 복덕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요즘같이 탐진치가 범람하고 소외와 갈등이 심할 때에는 더욱이나 한마디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인간방생의 실천입니다.

이에 현대불교신문은 가르침의 사각(死角)지대인 군부대, 교도소, 병원, 복지시설 및 해외교민시설 등을 대상으로 '신문 보내기 법보시운동'을 전개합니다.

현대불교신문은 그동안에도 꾸준히 법보시운동을 벌여왔습니다만 보다 많은 불자님들이 동참하실 수 있도록 1구좌당 동참금액을 대폭 낮춰 '월 1천원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군·경찰·병원·교화기관에 보급

- 대상처: 군부대 경찰 교화기관 각급 교육기관 병원 사회복지관 및 연변지역 등 해외교민 시설
- 동참방법: 매월 또는 수시로 1천원 이상 계좌이체나 온라인 입금
- 자동이체 계좌번호: 국민은행 006-01-0783-830 (현대불교신문사)
  제일은행 100-20-560799 (현대불교신문사)
  서울은행 15501-2269115 (현대불교신문사)
  농 협 053-01-236053 (현대불교신문사)
  뱅크라인 50-01-124050 (현대불교신문사)

※자동이체를 하시면 매월 은행에 가는 부담이 덜어지고 필요한 곳에 지속적으로 신문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입금 계좌번호(지정 법보시)
  국민은행 023-25-0007-820 (현대불교신문사)
- 참여방법: 입금하시기 전에 전화 또는 팩스로 의사를 밝혀주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혹은 은행에 가셔서 위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시면 됩니다.
- 문의처: (02)737-8881·722-4162

'1천원 법보시' 3만구좌 돌파

비지정 법보시 발송현황

발송처	부수	발송처	부수
군법당	220	지역복지	21
경찰서	241	사회복지	72
교정청	2	신용협동조합	8
교도소	161	사회복지협의회	14
구치소/감호소	77	종별협회	9
소년원	12	기업복지기관	62
감별소	6	불교병원	65
아동복지	39	국군병원	45
노인복지	24	경찰병원	6
장애인복지	12	기타 사회단체	141
부랑인복지	3		
청소년복지	18	계: 960건 / 1,258부	

법보시 동참자 명단

간종흠 강경중 강말숙 강미영 강민정 강병현 강북복지관 강성욱 강숙희 강순영 강신택 강욱구 강인성 강인숙 강장옥 강정기 강정화 강정회 강지숙 강춘계 강태근 강태복 강현숙 강황진 경순자 고계환 고광진 고덕현 고영배 고영이 고은주 고재선 고필선 구필회 권갑남 권동희 권미경 권복자 권성행 권순 권순혁 권연지 권영숙 권영현 권오진권옥숙 권은경 권진순 권차순 권춘순 기현정 김경선 김경수 김경숙 김경열 김경옥 김경해 김경훈 김경희 김광숙 김광순 김광태 김교안 김규정 김근삼 김근영 김금순 김기춘 김길운 김남석 김덕임 김두영 김록인 김명덕 김명훈 김문자 김미란 김미명 김미선 김미숙 김미순 김범수 김병서 김병주 김병철 김복남 김봉운 김봉해 김상덕 김상림 김상분 김서분 김석순 김석용 김선남 김성경 김성민 김성순 김성자 김성진 김성혜 김성희 김수영 김수희 김순남 김순녀 김순덕 김순련 김순식 김순옥 김승재 김승지 김식자 김신엽 김애란 김애리자 김애자 김여경 김연득 김연자 김연희 김영란 김영만 김영배 김영삼 김영숙 김영순 김영식 김영아 김영자 김영희 김옥 김옥경 김외선 김용구 김용범 김원순 김원용 김원우 김유학 김은성 김은중 김윤환 김윤희 김인성 김인희 김일동 김자경 김정란 김정선 김정숙 김정은 김정이 김정자 김정주 김정희 김제철 김종미 김종애 김종옥 김준만 김준모 김준엽 김준형 김준희 김지헌 김철수 김춘호 김춘화 김춘희 김태현 김태훈 김택곤 김한나 김헌 김현수 김현숙 김형창 김형철 김혜경 김혜기 김혜숙 김혜옥 김호 김호종 김화남 김화수 김활수 김희남 김희수 김희순 남성수 남성진 남수경 남수미 남일우 남철수 노만호 노유택 노윤택 노진희 노향순 노혜숙 덕운화 명형관 도옥희 도재권 동사섭 류경훈 류봉수 류영란 류조형 마정혜 마진호 명세정 모영희 무명 문명순 문병기 문상철 문숙자 문순조 문화자 민경주 민소영 민승자 민응식 박경선 박경숙 박광용 박광호 박금숙 박남순 박남순외신도 박내순 박명의 박미경 박미정 박봉주 박상규 박상기 박상섭 박석열 박성수 박성진 박수진 박숙경 박승희 박신영 박양님 박양임 박양자 박영애 박영준 박옥남 박용무 박용숙 박용자 박원규 박윤기 박윤식 박익형 박재련 박재진 박정산 박정순 박정자 박제원 박제원 박종두 박주연 박준호 박진환 박찬연 박찬혜 박철수 박춘자 박태규 박필원 박현순 박현주 박혜명등 박혜숙 박혜진 방금순 방명섭 배동금 배병진 배성호 배연수 배춘자 백상준 백성옥 백양심 백유선 백현기 백혜원 백경선 법인스님 법현스님 본사직원 본원신도 봉철웅 부산신도회 부산지원 사당5동법회 서귀연 서말희 서병학 서부웅 서옥경 서울은행 서윤아 서정숙 서준 서진 서최선 서춘건 서형관 석해월 선유진 선장재 선정호 선현자 설갑문 설정수 설지석 성동환 성민자 성재영 성필제 성호승 손금화 손봉희 손상률 손정숙 손혜숙 손화자 송규환 송미애 송복희 송양숙 송연숙 송인영 송정구 신기호 신미향 신복순 신상섭 신순희 신시균 신원민 신유진 신윤진 신재철 신조현 신진임 신택건 신호용 신홍재 심광엽 심단희 심묘희 심성학 심희주 안성모 안영선 안진후 양병덕 양영애 양은숙 양의군 양정순 엄정임 영등포법회 오동규 오두환 오미환 오병현 오선희 오송준 오순자 오승종 오주희 오창일 오창희 오현승 오현자 오형만 용산구법회 용환웅 우경애 우금식 우상용 울산한마음 원정옥 유금자 유미양 유양상 유은경 유인묵 유재춘 유정연 유정용 윤경애 윤경희 윤기수 윤병창 윤병혜 윤상문 윤석범 윤성 윤옥희 윤인자 윤재경 윤제학 윤준상 윤지웅 윤지은 윤창섭 윤태원 윤향숙 은경애 이강희 이경민 이경숙 이경아 이경원 이경인 이경자 이계선 이관형 이구자 이귀숙 이규만 이규환 이금순 이금주 이기오 이기철 이대섭 이덕의 이명규 이명순 이명자 이묘연 이미경 이미나 이미자 이번택 이범규 이병만 이보경 이복순 이봉순 이봉우 이분순 이상란 이상옥 이상윤 이성재 이송자 이순량 이순옥 이순자 이순천 이순호 이순희 이승은 이승훈 이신정 이씨 이아리 이양희 이연옥 이영숙 이영순 이영조 이영희 이오석 이옥영 이옥형 이옥희 이유순 이윤옥 이은주 이은진 이의남 이인상 이인숙 이임순 이장혁 이재국 이재윤 이재화 이접자 이정녀 이정례 이정수 이정숙 이정순 이정자 이정혜 이정희 이종돈 이종철 이준석 이준재 이준희 이중근 이지영 이지형 이진경 이진수 이진영 이진철 이창하 이창호 이철주 이태우 이태인 이태훈 이태희 이필순 이한희 이현숙 이현실 이현안 이현양 이현주 이형호 이혜란 이혜숙 이화숙 이화영 이효순 익명 인천신행회 임기남 임명옥 임명진 임선원 임소연 임옥재 임완숙 임우식 임종미 임춘심 임해순 임형대 임희자 장금강심 장미 장미욱 장점 장정숙 장정자 장정희 장축자 장해기 전계연 전규백 전복순 전삼우 전순남 전승현 전연석 전위자 전정희 전현수 전현진 정계영 정구순 정금관 정금란 정동한 정모아 정문식 정미경 정미련 정미형 정민아 정복순 정분선 정삼준 정상열 정숙점 정연동 정연봉 정연석 정연태 정연희 정영기 정옥녀 정옥찬 정운옥 정운욱 정점오 정정국 정정숙 정정자 정진욱 정필수 정필순 정학선 정해정 정해택 정현동 정훈채 조경자 조귀자 조남섭 조남주 조미란 조미숙 조상호 조양식 조영숙 조옥희 조원희 조유복 조윤숙 조윤호 조은미 조혜숙 조혜연 지로봉사모임 지유미 지청인 진경수 진영숙 진옥례 진욱상 진원중 진재영 진재용 차동호 차상환 차용옥 차현주 천재경 천현숙 천화조 청주교도소 최경락 최경진 최범순 최병언 최복내 최상철 최서윤 최석원 최성근 최성휴 최심형 최영도 최영명 최영봉 최영숙 최은희 최재두 최재철 최재혁 최정근 최정기 최정문 최정희 최주현 최행선 최형선 최희원 추철희 충남대교수불자회 표혜명 하금자 하명자 하흥용 한국여성불교 한기선 한마음선원 한명숙 한미순 한병소 한상현 한숙희 한순자 한아름 한임련 한철희 한춘영 한태희 한효심 함광점 함기석 함영숙 함지윤 허선숙 허성국 허수자 허재승 허종환 허찬응 허희숙 현수천 현월스님 현추월 혜월당 홍기장 홍명숙 홍소순 홍순아 홍영순 홍영호 황금철 황기용 황영분 황옥란 황옥석 황옥순 황점숙 황정옥